

여성이 행복한 충남

황창연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새로운 충남? 여성이 행복한 충남!

충남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민선 4기 동안 도정 운영의 모토로 삼았던 ‘대한민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슬로건과는 사뭇 차이가 느껴진다. 그동안은 경제성장을 통한 강한 충남만들기에 힘써왔고, 그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성장순위에서 전국적으로도 선두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만큼 도민들에게 충남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러하다. 충남은 예로부터 양반문화의 중심지이자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충남에서 여성이 행복하다면 도민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충남’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선 5기의 공약사항과 도정 추진방침에는 여성과 관련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복지분야 속에 여성이 포함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과 복지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고, 이와같은 등식이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여성문제는 복지의 한 분야이긴하다는 여전히 별도로 강조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해 한국의 성평등 점수는 61.2점에 불과하다. 이 점수는 2005년에 비해 3.6점 상승한 것으로 성평등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이 행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이다. 여성의 힘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 여성의 현주소

충남 여성들의 복지와 지위가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충남 여성들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사회, 정치, 경제의 각 부분에서 여전히 주류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인구학적으로 보면 충남의 여성 인구는 남성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산율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매년 저하되고 있다. 여성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더구나 60세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의 인구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남아선호의 전통적 가치관이 남아있으며 가정 내 남녀역할에서도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학력 수준은 25세 이상의 여성 중 초졸 이하가 42.2%로 전국의 초졸 이하 여성 평균 25.5%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생학습 참여율도 남성보다는 12%나 낮아 충남 여성들에게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최근 5년간 2.0% 감소하였다. 대신 60대 이상에서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충남의 산업구조상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 참여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시 여성의원 비율이 광역의원 10.0%, 기초의원 17.9%로 2006년 선거와 비교했을 때 광역의원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10.8%) 기초의원은 증가하긴 했으나(12.4%)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광역 14.8%, 기초 21.7%) 여전히 낮았다. 공직사회에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도 2009년 조사된 바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4.3%에 불과하였다.

충남 여성의 현주소가 이처럼 취약한 것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성차별적인 의식이나 문화, 남녀의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은 지역적인 특성과 정서를 고려하여 도민의 공감대에 기초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성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100만 충남 여성과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행복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세워야 하는가?

여성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

충남은 올해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여성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큰 흐름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평등사회를 만들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남녀가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 행복한 충남’이라는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책 과제를 수립하였다. 이하에서는 여성 정책 5개년 계획에 담은 주요 정책과제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여성의 경제적 참여의 확대이다. 2009년 충남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50.6%로 인구의 약 50%가 여전히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어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취업을 위한 훈련 및 기회확대,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창업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전통적 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진출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떠안고 있으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여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만5세아 무상보육과 시간연장 보육활성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후도우미지원, 찾아가는 농어촌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내 양육·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며, 가족 친화적인 직장의 여건과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시도하는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활동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이 사회에서 주체가 되려면 그에 따른 역량 강화와 평생 교육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충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매우 낮아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교육이 요구되고, 민간단체 혹은 지역사회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충남의 상담 실적을 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 여성 폭력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성이나 가정 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려면 먼저 사회적 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여성인권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자활 지원과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취약 계층이나 소수자의 복지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담았다. 아직까지는 여성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다수를 여성이 점하고 있어 이들 취약계층·소수자 여성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위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상대적으로 농업 인구가 많은 충남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업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의 육성과 전문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확대, 마을 공동급식소 운영, 귀농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충남의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추진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만 충남여성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도 의원, 관리직 공무원 등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여성관리직 공무원 비율은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점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확산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삶의 질을 보듬는 지역정책,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행복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해 지역민 모두가 잘 살고 그러면서 여성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10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었고, 충남에서도 올 해 당진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이제 시작한 셈이다. 앞서 제시한 7가지 영역에서의 정책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여성친화도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충남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여성이 행복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면 한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지역사회가 행복하다. 200만 충남도민이 행복해진다.